

동굴의 민속학적 접근

이 인 화*

A study on folk customs' approach to caves

In Wha Lee*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동굴의 민속학적인 접근을 통해 선조들이 어떤 용도로 동굴을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주거지로서의 동굴, 그리고 동굴관련 신화와 설화, 속담과 민간신앙, 생활민속으로서의 동굴의 이용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선사시대 동굴에서 주로 주거 및 식생활을 하였음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고, 동굴관련 단군신화가 있어 동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동굴마다 신비경과 관련된 동굴 설화가 많아 동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고, 미지의 세계와 관련한 속담, 기도처·수양처로서의 동굴, 또 현대 생활민속과 관련하여 식품 저장소로서, 군사시설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유희공간인 관광지로서 현대에는 크게 각광받고 있다.

주요어 : 동굴, 의식주, 신화, 설화, 속담, 민간신앙, 생활민속

Abstract :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review how our ancestors understood and used caves for which purposes, and also to research the good use of caves as residential area, myths and tales, proverbs and civilian religions through folk customs' approach to caves. In pre-historic age, I understood that the caves was used for residential area and for food life by various archeological data.

I could review the meaning of caves through Dangoon myth and deeply comprehend the caves, as every cave has it's own tales related with mysterious world. Caves are spotlighting as proverbs related with unknown world, and the caves as prayer place and mental training place, and also as foods warehouse, military facility, and play space I.E. sightseeing place from a viewpoint of modern living folk customs.

key word : cave, clothes, food, and shelter, myth, tale, proverb, civilian religion, living folk customs

I. 서론

동굴이란 땅 표면에 뚫린 자연적인 구멍을 가리킨다. 동굴은 만들어진 원인에 따라서 형태가 틀리게 나타난다. 땅 속 깊숙한 곳에 웅장하고도 화려한 지하 궁전의 모습을 이룬 것도 있고 좁고 험악한 산골짜기와도 같은 동굴도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동굴은 커다랗고 기다란 터널로 되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 모두가 그 지역의 지질이나 환경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동굴의 관광 개발, 희귀한 동굴생물의 생태 관찰, 그리고 선사 주거지로서의 유적 조사 등으로 동굴이 학술 조사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원래 동굴은 암흑의 세계로 향은, 향습이며 고요할 뿐 아니라 견고한 석회암의 장벽으로 되어 있으므로 천연 요새이기도 하고 버섯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양식장으로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태평양 제도의 섬들에서는 무풍성, 견고성, 적막성을 이용하여 시신을 모시는 동굴장이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동굴은 새로운 작전 기지나 특수 자원의 저장고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이 지하 동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분석과 이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런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다양한 이용이 강구되는 시점에서 과거 우리 선조들은 동굴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또 이런 동굴이 우리 민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동굴의 선사시대의 이용과 더불어 현대 동굴의 이용을 찾아 분류해보고 유형별로 동굴과 관련된 우리 민속을 찾아 동굴민속을 개황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굴민속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굴의 이해를 폭넓게 하고자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발표된 동굴에 관한 논문은 그 전부가 동굴에 대한 동물상과 환경요인 등 자연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 인문지리관련 논문은 없었다. 특히 동굴과 고대인의 삶, 그리고 동굴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동굴민속을 이해하는 논문은 단 한편도 발표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공동굴 등을 포함한 자연동굴에서 민속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선조들이 어떤 용도로 동굴을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주거지로서의 동굴, 그리고 동굴 설화, 속담, 그리고 동굴의 이용을 문헌자료, 인터넷자료 등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2004년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고고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동굴현지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동굴관련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인터넷과 5만분의 1지형도를 이용해 이 논문을 정리하였다.

II. 동굴과 의식주

1. 동굴유적

우리나라 자연동굴은 그 유형에 따라 지역적 분포가 달리되고 있다. 즉, 석회동굴은 내륙과 반도부에 분포되고 있으며 해식동굴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그리고 용암동굴은 제주도에 분포한다. 전 동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회동굴은 그 대부분이 강원도에 집중 분포한다.¹⁾

우리나라에서 동굴에 대한 조사는 지형과 지질분야에 있어 中村 新太朗, 小林 貞一, 吉村 一朗, 吉川 虎雄 등 일인학자들이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서무송(徐茂松), 정장호(鄭璋鎬) 등 우리나라 교수들이 연구발표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동굴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1929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동룡굴이 발견됨으로써 시작되었고 광복후로는 1958년 3월 경북사대 지리학과팀에 의한 경북 성유굴(聖留窟)에 대한 조사가 그 첫 번째가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은 20여 개가 있다.²⁾ 1974년 3월 홍시환, 황용휘, 김유혁 교수팀에 의하여 충북 미원 청석다리굴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고 1974년 1월 고수동굴(古藪洞窟) 입구에서 50m를 못 들어간 퇴적사면에서 수렵용 타제석기(打製石器)발견과 더불어 동굴입구 외부주변 경지에서 농경용 마제석기가 발견되었으며, 1975년 11월 입구로부터 150m 내부 동상(洞床)에서 마제도끼를 발견하였다.³⁾

1974년 10월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팀이 충북 제천시 송악면 포전리의 산중턱에 있는 점말동굴에서 선사시대의 주거유적을 발굴하였다. 1981년 제천 매포읍 상시마을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점유하며 생활하였던 3개의 바위그늘이 발굴보고 되었는데, 제1바위그늘이 그 가운데

구석기인들의 살림터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시 1그늘은 2층에서 11층까지 모두 10개 층으로 가늠되는데 4, 6, 10층을 제외한 7개 유물층에서 동물화석 유물이 출토되었다.

1983년 단양 도담 금굴은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연대를 많이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동물화석, 석기, 뼈연모 등의 다양한 구석기 시대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하여 준 중요한 유적이다. 구석기문화는 전기의 이른 시기에서 후기 층까지 모두 4개의 다른 문화가 존재하였고 이후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도 위의 층들에서 찾아지고 있다.⁴⁾

1) 정말 용굴

용굴의 규모는 작은 편으로 너비 2~3m, 길이 12~13m사이이고 굴을 채웠던 쌓임층의 두께는 4~5m에 이른다. 쌓임층의 대부분은 동굴의 천정이나 벽에서 떨어져 내린 석회암 낙반석과 굴 밖에서 바람과 물에 쓸려 들어온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쌓임층 안에는 제4기의 동식물 화석과 함께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여러 가지 문화유물이 있었다.⁵⁾ 많은 나무숯과 불뎀자리 그리고 불먹은 돌이 확인되었다.⁶⁾

2) 충남 공주 마암리 용굴

충남 공주시 마암리 용굴은 해발 150m정도의 계곡에 있는 동굴로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 석장리 유적 있다. 내부가 넓고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뿐 아니라 내부에 지하수가 있어 사람의 서식(棲息)에 적당하며 토기편으로 보아 삼국시대이후도 계속 사람이 출입하고 있었다.⁷⁾

3) 제주도 북제주군 궤내기 동굴 유적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1991년부터 3

년간 발굴하였던 동굴유적으로 출토된 토기와 철기 등의 유물에 근거하면 주거지 및 제사유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유적형성 시기는 초기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⁸⁾

궤내기 굴은 지형적 특성상 여름에는 밖에서 생활하다가 겨울동안에는 이 동굴내에서 생활한 주거유적일 것으로 추정하며 그 후 주거공간이 정립된 이후에는 돛대를 지내는 제사유적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궤내기굴 유적을 층위별로 보더라도 최하층은 탐라시대로 분류되는 기원전후에 유적 형성인들이 생활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고 그 후 제사유적으로 쓰인 흔적이 있다. 따라서 최하층에서 주로 출토된 동물뼈를 중심으로 볼 때 기원전후의 시기에는 사슴과 멧돼지가 주된 사냥물로서 동굴까지 이들을 이동하여 해체, 섭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소, 말의 뼈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물의 뼈가 쉽게 부스러질 뿐만 아니라 골단부가 분리되는 예가 많은 점으로 보아 궤내기굴 동물은 제사를 모시기 위해 이용된 어린 동물의 뼈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두개부의 뼈 비율이 높은 것도 멧돼지의 머리가 제사에 이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⁹⁾

2. 동굴속의 의식주

현재 고고학에서는 단순히 땅 속에 있는 석기만을 캐어내는데 만족하지 않고, 선사시대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라면 그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당시 사람들의 배설물, 그들이 살았던 집터, 그들이 남긴 화석화된 발자국, 그들이 먹다버린 뼈부스러기, 불을 피운 뒤 남은 나무숯과 등잔, 불탄뼈 등 선사문화와 생활의 복원에 필요한 여러 분야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손길이 뻗쳐지고 있다.¹⁰⁾

석기 유물을 통해 주된 생활근거지였는지, 재

료를 얻기 위한 간이생활근거이었는지, 또 여름 살이 자리, 집자리 등¹¹⁾ 그 생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또 신생대 제4기초 빙하기가 닥쳐왔을 때 동굴 안의 불에 그을린 자국이나 벽화를 통해 인류가 동굴로 찾아 들어 추위를 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동굴 벽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래도 동굴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 입구 안쪽에서는 사냥용 타제석기가 발견되었고, 입구 밖의 밭고랑에서는 농경용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발견되어 동굴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북 미원에 있는 냇가의 청석다리굴 속의 지하 50cm 아래에서 검은 노지가 발굴되었고, 그 동굴 벽면에는 거의 마모되어 가는 성혈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 한강의 중상류 연안에 있는 많은 동굴들을 삶의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식생활

현재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개는 유라시아 늑대(Eurasia·wolf)의 손들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축화된 것은 구석기 시대의 말기쯤인데, 가장 오래된 개의 유물로는 약 12000년 전의 것이고¹²⁾ 돼지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¹³⁾

생활여건속에서 석기의 사용이 요구되는 사양으로 잡은 짐승의 부위별 해체과정은 일정한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굴 밖의 넓은 곳에서 이루어졌고, 부위별로 해체된 짐승의 고기는 부엌·조리용 석기인 굽개, 밀개, 자르개, 찌개¹⁴⁾ 등으로 바르거나 요리해 먹는 행위를 주로 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굴안의 살림살이가 많은 뼈연모의 사용으로

(표 1) 점말용굴에서 나온 큰젓먹이짐승의 화석 종류

목	과	종
우제목	소과	들소
	사슴과	사슴, 노루, 사향노루, 고라니, 꽃사슴
식육목	족제비과	오소리, 족제비, 산달과, 수달
	개과	여우, 너구리
	고양이과	호랑이, 표범, 사자(?)
	곰과	불곰, 반달곰, 동굴곰
기계목	하이에나과	하이에나
	코뿔소과	코뿔소
토끼목	말과	말
영장목	토끼과	토끼
	긴꼬리원숭이과	짧은꼬리 원숭이
	사람과	슬기사람

※ 출처 : 손보기·한창균, 1989, 점말 용굴 유적, 박물관기요, 단국대 중앙박물관, p.156.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¹⁵⁾

제주도 북제주군 동김녕리 퀘내기 동굴 유적은 골편이 1706편이었으며 사슴, 멧돼지, 소, 말, 고양이과 동물 그리고 조류의 뼈가 발굴되었다. 그중 멧돼지(75%)의 뼈가 주종을 이루었고 사슴(17%), 소(6%), 말뼈가 3점 출토되었다.¹⁶⁾

또한 점말 용굴에서 발굴된 젓먹이짐승은 박쥐와 쥐 종류를 제외하고<표 1>와 같이 5목 12과 약 25종으로¹⁷⁾ 점말동굴에서 상당수의 뼈연모가 쌓임층에서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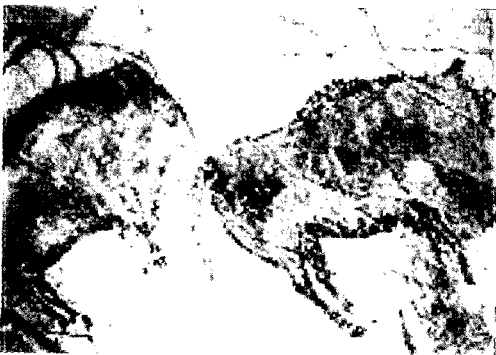
2) 의와 주생활

선사인들의 의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단지 인류의 조상이 돌을 쪼개 만든 연모를 통해 짐승의 가죽을 벗기어 입었을 것으로 추증되며, 동굴이 인류의 주거지였다는 사실은 충북 미원(米院)의 청석(靑石)다리굴, 충북 단양의 고수굴(古藪窟), 충북 제천의 점말동굴, 구남굴 동굴 화석(8점), 두루봉 동굴유적(14점) 등과¹⁸⁾ ‘다람쥐굴’이라고 불리는 색달동 해식동굴유적에서 적갈색 무문토기편들이 출토되어 동

굴이 주거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20)

또 인류가 동굴 속 깊숙한 곳에서 살기보다는 동굴 입구 부근이 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물을 먹고 사는 장소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굴 속 깊숙한 곳은 암흑지대이고 습기가 너무 많고 너무 춥기 때문에 오래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와 같은 곳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의 처리 등 환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²¹⁾이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발굴된 알타미라 동굴 유적에서 멧돼지 3마리와 말 2마리, 이리 1마리, 19마리 들소 벽화와 사람들이 제사드릴 때 썼던 막대기와 짐승 무늬를 새긴 칼, 뼈, 부싯돌 부스러기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1900년에는 약 만 1,000~1만7,000년 전에 그려진 동굴벽화가 프랑스 남서부와 피레네 산맥의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들소 사냥이라는 목적에 따라 멧돼지 3마리, 말 2마리, 이리 1마리 등과 함께 군집화 800여 점이 발견되었다. 드문드문 고양이나 주술사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림 중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이 겹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을 손쉽게 잡으려는 주술(呪術) 행위였음을 짐작케 한다.(그림 1, 그림 2)



[그림 1] 알타미라 동굴

Ⅲ. 동굴관련 신화 및 설화

1. 건국신화 : 단군신화

건국신화는 한 국가가 탄생하기까지의 사상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내용에는 그 나라 문화적 배경과 민족성이 담겨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단군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어두운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 동안 정성을 드렸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했으나 곰은 끝까지 참아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여 우리나라 시조인 단군을 낳았다는 동굴관련 신화가 있다.

<단군신화>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바닷가나 강가에 모여 살며 물가에서 조개도 줍고 물고기도 잡아 생활을 했다. 또한 풀로 덮은 집을 만들고, 숲에서는 짐승을 사냥도 하고 나무 열매를 따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높은 곳에도 나라가 있었다. 바로 평화로운 하늘나라가 있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하늘나라는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다스리고 있었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환웅은 땅 위의 세계를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땅에 내려가 사람을 다스리며 살고 싶어 했다.



[그림 2] 라스코 동굴벽화

마침내 환인은 환웅의 간절한 마음을 돌이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고 땅에 내려가 살도록 허락하였다.

환웅은 바람신, 비신, 구름신과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를 만들었다. 그 곳에서 옹고 그 큰 일을 가리고, 농사짓기와 병고치기를 가르치고 무려 360여 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 사람들을 다스렸다.

사람들은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렸다. 날이 가물면 구름신이 하늘에 구름을 모으고 비신이 비를 내렸다. 곡식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 놓은 땅에서는 곡식들이 낱알이 탐스럽게 익어 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 농사를 지었다. 마을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은 불어났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는 무리를 짓고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그 때마다 환웅은 싸움을 말리고 서로 돕고 살도록 가르쳤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가 자기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환웅은 정녕 사람이 되고 싶다면 썩 한 줌과 마늘 이십 개를 먹으면서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곰과 호랑이는 썩과 마늘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다.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어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곰은 어떠한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지 스무 하루 만에 곰은 드디어 예쁜 여자가 되었고 환웅은 사람이 된 곰에게 이름을 웅녀라 지어 주었다.

마침내 소원하던 사람이 된 웅녀는 아기를 갖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웅녀와 혼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웅녀는 다시 날마다 신단수

앞에 나아가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웅녀의 바람을 알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그래서 잠시 사람이 되어 웅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웅녀는 환웅과 혼인을 하였다.

날이 지나고 달이 차,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는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다. 환웅은 아이의 이름을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단군이라 하였다.

하늘의 환웅과 땅의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은 어진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단군은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일에 앞장을 서 다투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 주었다. 단군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여러 마을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임금이었다. 단군 왕검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단군 왕검은 1500년 동안 조선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잘 다스렸다. 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2. 동굴 전설

1) 동굴전설의 특성

첫째, 동굴전설은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동굴은 빛이 없고 습기가 많은 자연적 조건과 미지의 어둠이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신비로운 환경으로 여겨져 무시무시한 비밀이나 신비를 간직한 지하세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호기심, 있을 법한 귀신 이야기가 많으며, 이무기.뱀.흡혈박쥐 등에 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믿고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굴 속 깊은 언뜻에는 이무기나 용이 살고 있다고 하는 등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많다.

둘째, 석회암 동굴 등 자연동굴의 신비경과 관련해 전설이 만들어져 그 아름다움과 동굴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동굴이 도승이나 인물의 수양터, 기도터로 이용되었다는 전설을 통해 도력이나 신령이 깃든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사례는 수집하지 못했지만 암흑과 같은 어두운 동굴에서 역사의 인물들이 수양터, 기도터로 이용해 그 동굴의 가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넷째, 굴속의 모양과 관련된 굴명(窟名) 전설이 많다. 뱀처럼 길고 구부러졌다든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의미에서 굴명이 붙여진 곳이 많다.

다섯째, 동굴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흔적을 간직한 곳으로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피신하였던 이야기들이 전해 온다. 특히 임진왜란, 625 전쟁과 관련된 전쟁과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전설이 많이 있다.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석회동굴인 고씨동굴은 임진왜란 때 횡성고씨(橫城高氏) 일가족이 이 동굴에서 난을 피한 것에서 유래한다. 동굴 입구는 남한강변의 높은 언덕 위에 있으며, 동굴은 3개의 폭포와 4개의 넓은 광장으로 되어 있다.²²⁾ 원래는 '노리곡 석굴'이라 했으나 임진왜란 때 부락민과 고씨가 피난하였을 때 왜군이 동굴 입구에 불을 질러 모두 숨지고, 고씨만 살아 남았으므로 고씨동굴이라 하였다. 고씨굴에는 피난생활을 하면서 밥을 짓기 위해 불을 때 고을린 흔적과 술을 걸었던 자리가 남아 있다.²³⁾

더욱이 울진의 성유굴은 임진왜란 때의 피난

지로 사용했던 증거로 토기며 인골화석 그리고 일상용품들까지 아직도 남아 있다.²⁴⁾

또 태평양 전쟁과 관련하여 일본 본토에 강제 연행된 한국노동자 150만 명이 댐 발전소 건설, 군수공장 건설, 비행장 건설, 광산 채굴작업, 지하 병커건설공사 등에 동원되었는데 나가노겐(長野縣) 마쓰모토(宋本)시 금화산(金華山)에 아홉군데를 뚫어 지하병커를 파서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 건설을 하던 지하동굴(지하갱도)이 있다. 한국 노동자 10명을 한 사람의 일본인 감독이 인간기계를 조직하듯 잔인하게 다루어 그 고통과 관련된 열십자, 1, 2의 한자 숫자가 혈서로 벽에 새겨져 있다.²⁵⁾

2차대전 당시 남제주군 대정읍 송악산에 만든 일본의 비행장 시설로 일본 해군항공대 비행장인 알프르비행장으로 제주도를 자신들의 본토 사수를 위한 대규모 땅굴을 파고 지하진지를 구축했으며, 송악산 알오름쪽의 땅굴은 군수물자를 실은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크고 넓게 건설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파 들어간 땅굴이 거미줄처럼 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송악산 해안절벽에는 15개의 인공동굴이 뚫려있는데, 너비 3~4m, 길이 20여m에 이르는 이 굴들은 성산 일출봉 주변의 인공동굴처럼 어뢰정을 숨겨놓고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했던 한국내 최대의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이다.

2) 동굴전설의 사례

(1) 제주도 쌍용굴

쌍용굴에는 '지의 석주'라는 이름의 거대한 용암주석이 있는데, 그 옛날 사람의 지혜를 높여주는 '지혜의 신'이 살고 있었으며, 17세기 중엽 실존 인물이었던 명의 월계 진좌수도 '지혜의 신'으로부터 의술을 배워 명의가 되었다고 한다. 진좌수에 대한 전설은 쌍용굴과 직접 관련은 없



사진 1. 고씨동굴

으나 쌍용굴 내부에는 전설 관련 석조각물과 전설내용을 기록한 비가 세워져 있다.

조선 영조때 한림읍 명월리에 진좌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이 서당에 다니며 글을 익히던 어느 날, 소나기를 만나 동굴 속으로 대피하게 되었는데 굴속에서 예쁜 처녀를 만나 같이 구슬을 가지고 놀았다. 이에 재미를 붙인 진좌수는 매일 그 동굴을 찾아 처녀를 만나 구슬을 가지고 함께 놀았다. 이를 눈치챈 서당 훈장이 필시 늙은 여우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진좌수에게 "그 처녀를 다시 만나면 그 구슬을 삼키며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보도록 해라"라고 일러주었다. 다음날 처녀를 만난 진좌수는 같이 노는 척하며 재빨리 구슬을 삼켰다. 그러자 그 처녀는 여우로 변하여 덤벼들기 시작했고, 당황한 진좌수는 하늘과 땅은 못 보고 도망치다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 살아났다. 그때부터 하늘과 땅은 통달하지 못했으나 사람에게 대해서는 흰히 꿰뚫어 명의를 되었다. 진좌수는 사람의 뱃속을 흰히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한다. 만약 진좌수가 침착하게 하늘과 땅도 보았다면 아마 천문, 지리까지 통달했을지 모를 일이다.

(2) 제주 김녕사굴

김녕리 마을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예로부터 귀가 달린 큰 뱀이 살고 있어 '살'이라 부르게 되었다. 뱀은 향아리만큼이나 몸집이 컸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은 매년 초에 만 15세가 되는 처녀와 오곡의 제물을 바치고 큰 굿을 해야 풍년이 들고 주민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뱀이 나와 곡식밭을 다 밟아 휘저어버려 흉년이 들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매년 애꿎은 처녀 한 사람이 재물로 희생되곤 했는데, 양반 집에서는 딸을 잘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과 같은 천민의 딸이 늘 희

생되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무당이나 천민의 딸들은 시집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선조 중종 때 서린이라는 판관이 19세의 나이로 부임해 왔다. 서린이 이 소문을 듣고 괴이한 일이라 분개하며 바로 술과 떡을 준비하고 처녀를 올려 굿을 하도록 명하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굴로 쳐들어 갔다. 굿이 한창 진행되자 과연 어마어마한 뱀이 굴에서 나와 떡과 술을 먹고 이윽고 처녀까지 잡아먹으려 했다. 이 때 서린이 군졸들과 함께 달려들어 창검으로 뱀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뱀의 사체를 불에 태워버렸다.

그런데 서린이 이곳에 오기 전 날 밤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뱀을 죽이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서린이 돌아오는 도중 뒤에서 '서린아, 서린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무의식중에 뒤돌아보니 자기가 죽인 큰 뱀이 검은 구름을 타고 뒤쫓아 오고 있었다. 놀란 서린은 말을 달려 관아까지 왔으나 정신을 잃고 쓰러져 그 후 오래동안 앓다가 죽었다.

그 외 김녕사굴에는 흉년을 몰고 오는 구렁이를 새로 부임한 판관 서린이 물리쳐 민생을 안정시켰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3) 삼척 환선굴

먼 옛날 대이리 뒷산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며 좃대바위 근처에 자주 놀러 나와 폭포수에 먹을 감곤 했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폭포 근처에서 먹을 감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산중턱에 이르러 갑자기 우뢰와 같은 소리가 나며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여인은 바위가 쏟아져 나온 커다란 구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후 그 여인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으며, 사람들은 사라진 여인을 선녀가 환생한 것이며,

라 생각하고, 이 석굴을 환선굴이라 이름 짓고 후히 제를 올렸다. 환선녀가 사라진 이후 마을에는 이름 모를 질병이 들고 사내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등 재앙이 끊이질 않아, 환선굴에서 쏟아져 나온 바윗더미 위에 산신당을 짓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이후 마을은 예전과 같은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

(4) 정선 화암굴

화암굴에는 이무기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개방되어 있는 대광장 좌측 끝부분에 이심굴(이심은 이무기의 방언)이라는 지굴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서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려다 벽면에 있던 마리아상을 보고 놀라 승천하지 못하고 이심굴로 숨어들어 지금도 승천할 기회를 기다리며 살고 있으며, 날이 가물면 천포동네 샘에서 흙탕물이 나오는데, 이무기가 물을 흘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5) 단양 온달동굴

충청북도 단양군은 천연 석회암 동굴이 발달한 곳이다. 온달동굴은 온달성 아래 있는 석굴이다. 각 동굴마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태고적 신비함을 머금은 온달동굴의 모습은 단연 빼어나다.

옛날 신라와 열전을 앞두고 민간인과 관군이 함께 온달성을 쌓는데 남녀 구별, 빈부귀천도 없었다고 한다. 온달은 물구덩이를 파 들어가다 보니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온달동굴이며 온달의 누이동생도 치마폭에 돌을 싸서 산성 위로 날랐다. 굴 안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렀고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얼지 않아 성 아랫마을 사람들의 간이 상수도로 사용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무기가 1,000년을 채우지 못해 용이 되지 못하고 4년마다 심술을 부리기 때문에 윤달이

드는 음력 4월에는 굴 물이 말랐다고 한다.

또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 동굴을 피난처로 사용했기 때문에 곳곳에 훼손 흔적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²⁶⁾

(6) 울진 성류굴(聖留窟)

1963년 5월 남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민간에게 개방된 울진 성류굴(천연기념물 제155호)은 천연 석회암 동굴로 총길이 472m에 왕피천과 통하는 12개의 광장과 5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굴에는 얽힌 전설도 많은데 신라 진덕여왕때 원효대사가 이 굴에서 수도하였고, 신문왕 때는 보천태자가 굴 앞에서 20일간 수도하여 득도하였으며, 신라 화랑들이 이곳에 유람와서 신비한 지하 경치를 보고 감탄했다고 한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불상을 피신시켰다는데 유래되어 선유굴에서 '성류굴(聖留窟)'으로 불리게 됐다는 유래가 있지만 신라 제31대 왕인 신문왕의 아들 보천태자와 관련한 또 다른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삼국유사 '명주(溟州) 오대산 보절도 태자전기'편에 신문왕은 슬하에 보천과 효명 두 아들을 두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은 속세를 벗어나고자 오대산으로 들어가 여러 부처의 진신을 참배하고 각각 암자를 지어 수도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신령스런 샘물을 길어 1만 문수보살에게 차 공양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왕의 동생이 왕권을 다투다 쫓겨났고 신하들은 오대산으로 찾아와 보천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 하지만 보천태자가 한사코 울며 왕위를 거절하므로, 대신 효명태자를 왕으로 옹립했는데 이가 바로 성덕왕이고, 왕위를 거절한 보천태자는 신령스런 샘물(우통수)을 매일 마시다 보니 어느 날 육신이 공중을 뿔었다고 한다. 그러한 그가 도를 닦기 위해 도착한 곳이

바로 예전에 장천굴로도 불렀던 성류굴이었다.

굴 안에 살던 장천굴신은 보천태자가 수구다라니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 감격하여 보살계를 받아 불교에 귀의했고, 장천굴신이 보살계를 받은 다음날 굴은 형적이 없어졌다.

장천굴신이 불교에 귀의한 후 성류사가 세워졌으며, 성류사라는 명칭도 보천태자가 이곳에



사진 2. 성류굴 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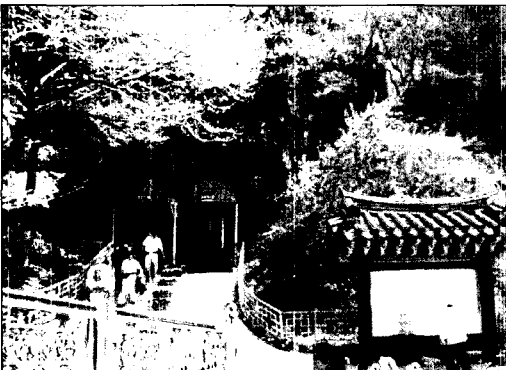


사진 3. 성류굴 입구

머물러 수도한 사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보천태자의 흔적을 따라 동굴 속을 들어가면 연무동 석실에는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 휘하의 왜군이 침범했는데 지역 주민과 의병 500명이 이곳으로 피난와 왜군과 싸우기 위해 무술을 연마했다고 하며 석실을 지나 오작교가 있다.

제4광장 탐실을 지나 제5광장에 이르면 ‘용신지’라는 연못이 나온다. 보천태자가 이곳에서 수도할 때, 이 못 안에 살고 있는 용을 타고 건넌다고 하는 곳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신 온 주민을 왜군이 감금해, 주민 모두가 굶어 죽은 끔찍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목숨을 잃은 인골이 화석으로 변해서 군데군데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제6광장 지옥동의 지옥다리에는 보천태자가 이 다리를 건너 마지막 광장까지 가서 불도를 닦고 돌아왔다고 한다. 인간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다 사한 후 건너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고 한다.²⁷⁾

(7) 양산 신동대 굴

양산시 원동면 장선리 신불산 중턱의 신동대 굴은 약 4백여 년 전 신동대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신불산 중턱에 있는 천연석굴에서 술수 공부를 연마하여 끝내 도통하여서 신비한 행적이 많았으나 그 중에도 특히 축지법에 능하여 하루저녁에 한양을 오고 갔다 한다. 그리하여 오만해져 그 술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한양의 궁녀들을 강간하기도 하였고, 낙동강 잉어도 잡아먹곤 하였다.

이에 나라에서는 궁녀들의 몸에 명주끈을 매어 두었다가 이 명주끈을 단서로 나라에서 신동대의 있는 곳을 탐지하고 잡아오라 하자 즉시 중국으로 하루 저녁에 도망해 새벽에 안동땅에 도착하였다.

때마침 어느 노파가 마당을 비로 쓸면서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조선에 있는 신동대는 하루 저녁에 수만리를 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뗏들 하느냐"고 호령했다. 이 말을 들은 신동대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오만피운 자신을 깨우친 바가 있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노파에게 자신의 부질없는 짓에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다시 노파에게 "어찌하여 저를 알아 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노파는 대답하기를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장날에 만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누지 마시오"한 후 안채로 훌쩍 들어가 버렸다. 그리하여 신씨는 고향에 돌아와 다시 도술을 의롭게 써서 임진왜란 때는 왜놈을 무찌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신씨는 깨우쳐 준 노파의 예언을 잊어 버리고 어느 날 장날에 우연히 만난 할할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말았다.

그래서 신동대는 그 날 바드리라는 고개에서 넘어오다 죽고 말았다.

그 뒤 신씨가 살던 동굴에는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서 결식을 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동굴 한 모퉁이에서 쌀이 흐르기 시작하였는데 쌀은 그 할머니가 먹을 만큼만 흘러나왔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욕심이 생겨 쌀이 흐르는 구멍을 크게 넓혔다. 그랬더니 쌀은 영영 흐르지 않고 대신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뒤 할머니는 예전처럼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굴을 신동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 "신동대 굴"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지금도 바위 천정에서는 물방울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8) 양산 적미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적미굴(寂彌窟)은 최제우가 이 굴에 들어가 도를 닦아 도를 깨달

고 동학을 창설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최제우가 도를 깨우친 이 적미굴은 천성산 내원굴에 있는데 그 위치가 대단히 경사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나들이가 매우 위험하다.

(9) 양산 용궁굴

이 굴은 양산시 원동면 중리에 있는 굴로 굴의 깊이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상재가 부모의 묘소자리를 구하려다 실수로 이 굴에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낙동강 물에 지팡이가 나타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용궁과 통한다고 용궁굴이라 부르고 있다.

(10) 언양 화장굴

언양읍 송대리에 있는 화장굴은 화장산 중턱에 위치한 폭 6m, 높이 2m 가량의 굴이다. 이 굴 안에는 옥천이라는 샘이 있는데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난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몸이 불결한 사람이 오면 몹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샘물이 단류(斷流)한다고 하여 염천이라고도 한다.

이 화장굴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두 가지 전설이 있다. 하나는 신라 때 화장산에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곰사냥을 나갔다가 오히려 곰에게 화를 당하여 죽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오누이는 부모를 찾으러 산속을 헤매다 그만 눈 속에서 지쳐 죽고 말았다. 그래서 죽은 부모의 영혼은 두 아들 딸의 죽음을 가엾게 여기고, 그 영혼을 복숭아꽃이 되게 하여 따뜻한 양지쪽에 피게 하였다. 그때 마침 신라왕의 공주가 병이 들어, 약으로 복숭아꽃을 찾고 있었으나, 때가 겨울철이라 복숭아꽃을 구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사자를 사방으로 보내 복숭아꽃을 찾게 하였는데, 한 사자가 이 화장굴에서 찾게 되

어 공주의 병을 고치게 하였다. 사자가 그 꽃을 꺾을 때 떨어져 시들어 버린 꽃술이 하나는 오빠의 녀인 대숲이 되고, 또 하나의 꽃술은 누이의 녀인 솔숲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르게 전해 오는 전설은 신라의 어느 대왕이 병이 들었는데 복숭아꽃이 이 병에 좋다하여 찾아 헤매던 중 한 겨울 화장굴에서 그 꽃을 찾게 되었다 한다. 하지만 그것은 꽃이 아니라 도화(桃花)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니였다는데, 병든 대왕은 데리고 온 이 도화라는 비구니를 보고 금방 병이 낫고 말았다는 전설이다. 화장굴과 화장산의 이름은 이 복숭아꽃의 전설로 말미암아 붙여진 이름이다.

(11) 울산 검멀레 동굴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검멀레 동굴은 모래사장 끄트머리 절벽아래에는 동굴로 콧구멍이라고도 하는 동굴이다. 이 동굴은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썰물이 되었을 때, 해수욕장 끝에 자리잡은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고래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12) 태백 용연동굴

용연동굴은 해발 980m 속칭 용수굴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용연동굴은 약1억 5천만 년에서 3억 년 전 사이에 형성된 총 연장800여m의 석회 동굴로서 1980년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동굴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작전수행지였다고 전해 오고 있다.²⁸⁾

IV. 동굴 속담과 민간신앙

1. 속담

1) 동굴관련 속담의 일반적인 특성

첫째, 굴 관련 속담은 아주 적은 편으로 동굴관

련 속담보다는 구멍에 대한 속담이 대부분이다.

둘째, 속담에서 동굴은 깊고 끝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셋째, 구멍은 굴 입구의 크기와 관련된 속담들이다.

2) 동굴관련 속담

(1) 굴 관련 속담

- ① 굴 우물에 돌 넣기(던지기) : 구렁진(깊은) 우물에 돌을 아무리 던져 넣어도 다 메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니, 아무리 노력해도 한이 없다는 뜻.
- ② 굴 우물에 말뚝 쏘어 넣듯 한다 :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먹는 것을 조롱하는 말.
- ③ 소금 먹은 소 굴 우물 들여다보듯 : 소금 먹은 소가 목이 몹시 타지만 우물이 깊어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니, 눈만 크게 뜨고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
- ④ 범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지 : 어떠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뜻.

(2) 구멍관련 속담

- ① 개구멍에 망건치기 : 남이 빼앗을까 겁을 내어 막고 있다가 막던 물건까지 잃어버린다는 말.
- ② 개구멍으로 통영갓(통량갓)을 굴러낼 놈 :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 ③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 : 개도 도망갈 때를 두고 쫓지 않으면 되려 물게 되듯이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짓누르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말.
- ④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 조그마한 불실(不實)로 큰 손해를 가져온다.
- ⑤ 구멍 봐 가며 썰기 깎는다. : 형편을 보아 가

- 며 알맞게 일을 꾸려 나간다(해결한다)는 뜻.
- ⑥ 구멍 봐 말뚝 깎는다. : "구멍 봐 가며 썰기 깎는다."와 같은 뜻.
- ⑦ 구멍에 든 뱀의 길이를 모른다. : 구멍 속에 뱀이 들어 있으면 그 길이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⑧ 구멍에 든 뱀 : "구멍에 든 뱀의 길이를 모른다."와 같은 뜻.
- ⑨ 구멍은 깎을수록 커진다. : 잘못된 일을 해결하려다가 점점 더 크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
- ⑩ 구멍에 든 뱀 길이는 모른다. : 구멍 속에 들어 있는 뱀의 몸길이를 모르듯이, 다른 사람의 숨은 계주나 감춘 비밀은 알 수 없다는 뜻.
- ⑪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 아주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을 비유하는 말.
- ⑫ 대구멍으로 하늘 쳐다보기(북한) : 사물현상을 전면적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일면적으로 좁게 보는 것을 이르는 말.
- ⑬ 돌도 십 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오래도록 바라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의미.
- ⑭ 똥구멍으로 호박씨 깎다. : 겉으로는 순진해 보여도 속은 맹랑한 사람을 뜻하는 말.
- ⑮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 몹시 가난하다는 뜻으로써, 시골서 가난한 사람은 나물만 먹게 되기 때문에, 똥을 늘 때 똥이 되어서 잘 나오지 않아, 똥 구멍이 찢어지도록 굉장히 아플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 ⑯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 (사물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시야가 좁은 관찰 태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 ⑰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 추운 겨울철에는 벽이나 문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찬바람이 제법 세계 들어온다는 뜻.

- ⑱ 범 본 여편네 창구멍 틀어막듯. : 배가 몹시 고팠던 사람이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것을 이르는 말.
- ⑲ 삭은 바자 구멍에 노랑개 주둥이. : 다 낡은 바자 구멍으로 개가 주둥이 들어 밀듯이 필요 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2. 민간신앙

1) 기도처로서의 굿당

굿을 하는 굿당은 굿을 거행하는 의례 공간이다. 신령이 왕립하는 곳이며 신과 더불어 놀 수 있는 신성한 영역으로 성전(聖殿)과도 같다.

신을 모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숙하고 장엄한 의례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무속현상에서 보편적 양상 중의 하나로 무속신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기도 하다.

굿하는 것을 미신시하기 전,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기전 의식개혁운동이 벌어지기 전만 해도 굿을 의뢰한 사람은 집안을 굿청으로 꾸미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굿일을 맡은 무당도 그의 신당을 굿판으로 삼았던 전통이 있었다.

집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진 소집단의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신령이 머물고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서도 오랫동안 굿 의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굿소리 때문에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 되어 중단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

공공적인 굿당의 등장은 이렇듯 무속신앙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핍박이 계기가 마련되어 그 숫자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굿은 요란스럽게 이루어지는 의례의 특성 때문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위치하게 된다. 주변에 산과 물이 있는 자연친화적 성

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굿당 내부 구조상 필수적으로 산신당과 용궁당 그리고 서낭당이 들어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굿당은 주로 국유지나 사유지 또는 국립공원 속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지어진 곳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굿당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이 사찰, 기도도량 또는 연수장 등의 간판을 걸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²⁹⁾

따라서 기도처가 명산 명소에 있는 관계로 많은 규제와 제재가 따르고 있다. 대부분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속신앙인들이 기도하러 갈 때는 많은 정성을 들이지만 돌아 올 때는 싸 가지고 갔던 것들을 몽땅 버리고 온다. 그런 관계로 기도터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해가고 결국 환경문제가 야기되어 폐쇄되고 만다.

2) 기도처로서의 굴의 조건

민간신앙승배자들이나 무속인들의 기도처는 명산대천의 큰 암석이 있는 곳으로 대개는 대개 단애(斷崖)아래나 절리(節理) 등으로 큰 암석이 갈라진 틈, 또는 그런 웅장한 암석아래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동굴을 기도처로 삼는다. 그 외 토굴이나 방공호로 사용하던 인공동굴이 기도처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국에 영험하다고 알려진 기도처는 대개 명산대천에 주로 있다. 그러나 현재 산불 및 법의 규제 등으로 많은 기도굴이 폐쇄되었고 그나마 대부분 사찰에서 기도굴을 관리하는 형편이다.

영험한 기도처의 자연지리적인 조건은 굴안의 암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한다. 생명수요,

만물형성의 근원이 물이 졸졸 설새없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암석이 뒤덮은 장소, 아니면 큰 암석이 웅장하게 있는 곳이다. 이것은 한국내에 전해 내려오는 미륵신앙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 기도처로서의 굴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기도굴 선정의 조건으로써 굴의 길이나 크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굴의 길이는 입구로부터 1m~5m정도이고 최적의 기도굴은 굴의 길이가 2m~3m가 좋다. 크기는 제자(기도자)들이 1명~10명이 들어갈 정도가 적당하며 보통은 2~3명이 들어갈 자리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반드시 정한수를 떠 놓을 수 있는 물이 바위틈에서 흘러 나와야 한다.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영험하다고 알려진 기도굴은 전국에 180여 개가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원도봉산 쌍도끼 바위 기도처는 기도굴이 뿔뿔했는데 그 굴 중간에서 물이 나온다. 생명수인 물이 졸졸 설새없이 나온다. 전라도 천왕산 금강굴 기도처는 그 안에 여자음부형의 바위가 있는데 그 음부에서 물이 나온다. 영월 굴런암 기도처는 거대한 암석 아래 굴에서 물이 나오며 그 앞에 7~8명이 텐트를 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다.

경기도 도두람산(옛날 저명산) 약수암 기도터는 산밑 마을에 한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아파 의원에게 진맥을 하고 백방을 다 써도 효력이 없으며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아들은 약수암 굴기도처에 올라 3일 밤낮 기도를 간절히 하였다. 그러다 잠깐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도두람산 산신령이 나타나 기도하는 바위 끝에 하얀꽃이 핀 약초가 있으니 그것을 정성스럽게 캐서 어머니께 달여드려라. 그러면 병이 나으리라는 현몽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니 어머니

병이 감쪽같이 나왔다. 그리하여 그 효자는 그 굴을 깨끗이 하고 산신령께 감사의 제를 올렸다.

3) 사례지역

(1) 강원도 영월군 봉래산 불련암 기도처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799.8m) 삼옥리에 두 곳의 동굴 기도터가 있다. 이곳은 석회암층이 탁월하여 곳곳에 카르스트지형이 발달하였고 인근에 영월광산, 대림광산이 있다. 영월읍 부근이 해발고도 200~500m 정도의 분지로서 남동쪽은 태백산맥, 북서쪽은 차령산맥 줄기가 뻗어 있어 백운산(1,426m)을 비롯하여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두위봉·태화산·운봉 등이 겹겹이 솟아 있는 산악지대이다. 이 동굴은 불련암이란 암자가 굴 앞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시절 철거시켜 버려 현재에는 터만 남아있으나 동굴기도터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영험을 주는 기도

터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두 동굴기도터는 자연동굴로 절벽 중 큰 동굴은 속으로 기도처가 4곳 있는데 3곳이 일반인들이 사용중이고 또다른 동굴기도처는 개인기도처로 2곳의 동굴이 있다.³⁰⁾ 동굴에서 수십 길이 넘는 절벽 아래로 맑고 푸른 동강이 흐르고 있다.(사진 4, 사진 5)

(2) 북한산 남장대 바위동굴 기도처

1983년 지정된 북한산국립공원 남장대 포도밭골 바위동굴 기도터는 중생대 말에 관입한 화강암이 지반의 상승과 침식작용으로 지표에 노출되어 절리와 표면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굴로 커다란 바위동굴 기도터다. 바위틈에 천장을 만들었던 흔적과 용궁이 있던 자리, 바위 벽면에 무속화를 그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인근에 빨간 십자가를 그려놓은 모습이 보인다. 이곳은 도줄이 세고 약사줄이 세서 고기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한다.

(3) 청풍 중앙 석굴암 기도처

고대 삼한시대부터 대대로 내려온 알려지지 않은 기도터로 대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천연동굴로 석탑 두 개가 있고 중앙석굴이 있는데 세찬 바깥바람도 막아준다. 20여 평의 넓은 동굴에 치성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높게 단을 만들어 놓았고 특이하게 양옆으로 용궁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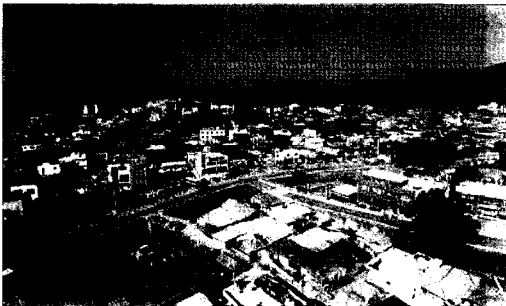


사진 4. 영월 읍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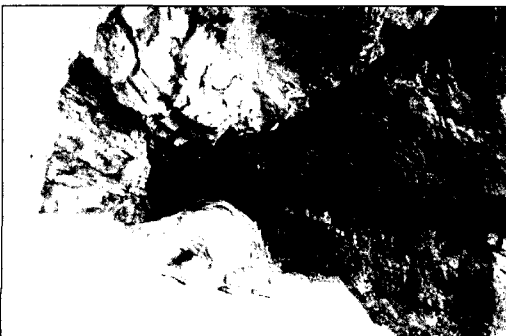


사진 5. 봉래산 불련암 기도 동굴



사진 6. 북한산 남장대 바위동굴 기도처

사시사철 물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개의 토굴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3개소가 있다.³¹⁾

(4) 금강정사 우금바위 기도처

전라북도 변산 금강정사 우금바위(315m) 기도처는 우금산성안의 산위에 왕관을 올려 놓은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다. 복신장군과 유민들이 백제부흥운동을 펼쳤던 곳이기때 장군줄이 센 기도터로 전에는 금강정사에서 관리하던 칠성암 암자자리이다.(사진 7)

칠성암이 있던 자리에는 용궁과 함께 집채보다 큰 바위(장군바위라 부름)가 자리잡고 있고 오른 쪽으로 미륵을 모시고 왼편 아래 부정이 생기면 물이 마르는 용궁이 있다. 그리고 산정에 기도터가 있는데 기도터는 세 개의 굴이 각각 있다. 그 중 가장 큰 굴이 원효사의 수도처였다는 원효방이 있으며 그 외 2곳은 현재 폐쇄되었다.

금강정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오래전 묘령정사라는 절이 있던 터로 변산지역에서 기도와 굿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오래전 사찰이 있을 당시에 사용되던 용궁자리가 현재에도 계속 쓰이고 있으며 자손이 귀한 집의 삼신기도가 잘 받아 아기를 가진 적이 많다고 하며 도술이 세계 들어오고 신긋의 경우에는 빠짐없이 말문이 터졌다고 한다.³²⁾

(5) 신탄진 용궁 기도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용궁기도처는 청동기 마한시대부터 줄 곳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오솔길을 오르다 보면 왼편으로 거대한 암석인 장군바위가 있고 그 위로 용궁기도터가 있다. 이곳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면 효험이 좋고 특히 위장병과 신경통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 또 입시철이 되는 겨울에 합격기도를 하러 많은 사람이 온다.³³⁾(사진 8)

(6) 계룡산 창벽 기도처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나라에서도 주목한 명산으로 나라에서 큰 제사를 지내던 중약당이 있던 곳이다. 백제때는 이미 계룡 또는 계람산 등의 이름으로 바다 건너 당나라까지 알려졌다 한다. 지난날 이태조가 풍수성에 따라 수도를 옮기려고 한 사실이 있었고 근대 이후에도 신도안을 중심으로 이른바 민속의 본산이 되어 1970년대 난립해 있던 종교단체를 정리한 바 있다.

창벽은 금강의 푸른 물이 기암절벽을 감싸고 흐르며 가파른 능선의 숲이 조화를 이루어 그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은 중턱에 0.5평 정도의 성황기도터가 나오고 그곳으로부터 100여 m 올라가면 용궁과 장군바위, 치마바위 등이 있



사진 7. 변산 금강정사 우금바위 기도터



사진 8. 대전 신탄진 용궁기도굴

다. 장군바위 기도굴은 급한 소원을 꼭 들어주는 영험한 곳으로 이름나 있다.³⁴⁾

V. 동굴의 생활민속

1. 생활민속으로서의 동굴의 특성

첫째, 생활민속으로써 동굴은 발효 및 저장시설로, 생활용수 공급처로, 관광지와 같은 유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발효 및 저장시설으로써 동굴은 어리굴젓, 새우젓 등 항온성을 이용해 발효되고 저장되고 있으며 버섯의 재배지로, 그밖에 각종 실험 실습실로도 이용되고 있다.

셋째, 석회암 지대의 특성에서 모여드는 물을 이용해 생활용수 및 양식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넷째, 현대 동굴의 신비경을 이용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동강유역에만 현재까지 확인된 석회동굴이 250개이며, 얼마나 많은 동굴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1970년대 조사에서 남한에만 약 700여 개의 동굴이 발견되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12개 동굴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관광동굴 개발 비율이 높은 편으로 현재 관광동굴은 밀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오염에 의한 내부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 생활민속으로서의 동굴의 분류

1) 발효 및 저장시설로서의 동굴

자연동굴 및 지하토굴에 식품을 저장한 것은 BC 9000~7000년경으로 중동지방에서 신석기 이전부터이다.³⁵⁾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에 의해 곡물을 지하에 저장한 사례나 시험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군사목적으로 일부 지하동굴에 저장하고 있으며 1986년 백미와 압맥(壓麥)의 특수 저장방안 연구가 있었고 충남 서산지역에서 전

통적으로 생강을 토굴에서 저장해 오고 있고 1996년 6월 1,480평 규모로 10,368톤 저장규모로 곤지암 지하저장터미널을 착공하였다.

지하동굴이 국내에서 식품저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새우젓을 숙성·저장하는 것이다. ([표 2] 참조)

[표 2] 우리나라 새우젓 저장 동굴 현황

구 분	개소수	총공변길이	저장규모
신안군 입자도	4개	400m	480톤
홍성군 광천읍	20개	4,700	2,180톤

자료 : 이무원·임재환, 동굴을 이용한 수산물 저장의 사회경제적 투자효과 분석(수협중앙회, 1991, 6.)에서 재인용.

광천읍 용암리 뒷산의 새우젓 저장동굴은 일제시대 때 사용된 자연적인 동굴(폐광) 몇 개소와 1960년대 초 굴착된 인위적인 동굴이 대부분이다.³⁶⁾ 지하동굴은 13~15°C의 적정온도 및 습도의 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새우젓의 숙성이 용이하며 보관시 변질의 우려가 없어서 새우젓 저장에 편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광천지역의 새우젓 저장판매 상인은 4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저장동굴 20개소에 2,180M/T정도가 저장 가능하다. 또한 광천지역의 새우젓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액은 90억원이다. 지하동굴 규모는 광천지역 신흥상회의 경우 길이 30m이고 너비가 1.8m, 높이 2m로 새우젓 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200l (250kg)짜리 드럼통 200통을 저장할 수 있다.³⁷⁾

2) 생활용수로서의 동굴류(洞窟流)의 이용

종유굴(種乳窟)은 원래 지하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종유굴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석회암이 발달하는 가르스트(Karst)지대에서는 빗물이 땅위로 흐르지 않고 돌리네와 폴리에의 밑바닥부터 땅 밑으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로 된다. 따라서 넓은 평지가 물이 부족하여 이용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곳도 많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이야 말로 생명수로서 물을 찾아 헤매는 고투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강원도 삼척의 관음동굴(觀音洞窟)은 일종의 수혈(水穴)인데 동굴내에는 높이 20m에 달하는 폭포가 있다. 이 지하수는 매분 3.6㎡으로 200㎡에 이른다. 이와 같은 많은 양의 물이 동굴의 배후에 있는 석회암지역의 물이 모인 것이다. 삼척의 초당굴(草堂窟), 활기굴(活耆窟) 등 많은 석회동굴도 비슷한 예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근에 계곡하천은 고갈되어 그 유수량이 적은 곳도 있다. 이것은 빗물이 모두 지하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동굴 돌리네 밑의 포놀(ponol)으로부터 지하수가 계속 흘러 석회동굴과 연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현재 이 대지의 농가에서는 돌리네의 밑에 펌프를 파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월의 고씨동굴이나 초당굴, 관음굴, 활기굴 등지에서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고갈되는 일이 없으며 1년을 통하여 섭씨 14~16℃ 내외의 물이 솟아 오르고 있다. 더구나 초당굴의 동굴 지하수는 5만㎡에 달하고 있어 계곡밑에 있는 초당 저수지에 많은 수원을 확보케 해주고 있다. 이 지하수는 부근일대에 좋은 관계용수로 되고 있고 평창군이나 단양군의 동굴지대 부근에서는 인근 현지주민들의 상수도 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단양 영춘에서는 온달굴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물방아를 돌리고 있었던 흔적을 아직도 볼 수 있다.³⁸⁾

3) 유희공간으로서의 동굴

(1) 울진 성유굴

성유굴은 우리나라 최초로 탐험이 이루어진 동굴이다. 1961년 11월 문화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1963년 5월 7일, 석회암동굴로는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성유굴의 내부는 12개의 크고 작은 광장과 5개의 호수로 되어 있다. 천장이 가장 높은 곳은 40m에 달하고 수심은 30m에 이른다. 동굴의 규모도 크고 2차생성물이 밀림처럼 발달해 굴 전체가 웅장하고 화려한 중유석군으로 꽉 차 있다. 입구에서 막장까지 어느 곳에서나 웅장하고 신비한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굴 내부의 호수는 다른 관광동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굴 내부의 열 두 광장은 각각 특징과 분위기에 맞는 이름이 지어져 있고, 중유석들도 각각의 모양이나 분위기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있다.

(2) 영월 고씨굴

고씨굴은 국내 2위의 석회암 동굴이다. 1969년 6월 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씨굴은 1974년 5월 15일부터 관광동굴로 개발, 공개되고 있다. 주굴 1,800m, 총연장 6.3km로 소개되어 있으나 정확한 길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사 경험이 있는 동굴탐험인들에 의해 약 3,000m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동굴 입구에서 약 200m까지는 비교적 단순하게 외출기로 뚫려 있고, 400m 지점부터는 협곡이 전개된다. 800m 지점에 이르면 지하천이 넓어지고 거미줄같이 지굴이 갈라진다. 지굴마다 광장이 있고 광장마다 아름답리 석주며 중유석, 석순들이 무수히 발달해 있으며 천장에는 바람결에 움직이는 커튼과 같이 얇게 물결친 중유석이 매달려 있다.

(3) 단양 노동굴

노동굴은 관광동굴로는 유일한 수직동굴이다. 노동굴은 현재 입구가 3개 있는데 관광로 입구와 출구는 인공터널이고, 천연 입구는 출구 부근 천장쪽에 있다. 노동굴은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의 서쪽 약 6km 지점에 있는 옥녀봉에서 북으로 뻗은 산자락 중턱에 있다.

노동굴은 1979년 6월 18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1980년 일반에 공개되었다. 입구 안내판에는 동굴의 길이가 1,400m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총연장은 약 700m 정도이며 수직굴 관광으로서의 가치와 위치가 확고하다. 노동굴의 모양은 절리면의 발달이 좋아 이를 따라 종유석들이 열을 지어 생성된 형태인데, 유석이 이것들을 덮으며 하나의 거대한 유석으로 변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관광동굴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4) 단양 천동굴

천동굴은 단양읍에서 6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천동굴은 1977년 12월 8일 충청북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78년 10월 일반에 공개되었다. 굴 입구에서 산으로 150m 쯤 되는 곳에 돌리네가 형성되어 있으며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길이는 470m로 되어 있으나 단양군 자료에는 전장 200m로 기록되어 있다. 천동굴은 관광지로 개발된 석회암동굴 중 제일 작지만 그 내부에는 어느 굴 못지않게 다양하고 신선한 종유석군으로 꽉 들어차 있으며, 종유관과 곡석, 그리고 석회화단구 안에 침전된 2차생성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대단히 우수한 굴이다.

(5) 단양 고수동굴

고수동굴은 관광동굴의 대표적인 동굴이다. 1976년 9월 2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수동굴

은 총연장 1,600m, 주굴 길이 600m, 지굴 길이 1,000, 수직표고 50m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동굴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고수동굴 내부는 부분적 3층 구조를 이루고 종유석의 모양과 내부 조화에 따라 81개의 이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입구에서 처음 나타나는 경관은 선사 주거지터와 응석공인데 천장에서 공급되는 물이 벽을 따라 흐르거나 작은 동공에서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기도 하여 바닥은 호수를 이루고 있다. 내부에 붙여진 이름은 어느 굴과 다를 바 없으나 고수동굴은 굴 전체에 걸쳐 색채와 모양이 다양한 2차 생성물들이 들어차 있고 규모도 크다.

(6) 단양 온달동굴

1979년 6월 18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온달동굴은 1975년 8월부터 일반에 공개되었었다가 폐쇄된 후 1997년 11월 2일 재공개 되었다. 과거 온달동굴에는 많은 물이 있었으나 입구를 지금의 크기로 넓히면서 수량이 크게 줄었다. 폭포가 없이 연결되는 수로는 무척 순탄하여 1975년 개방 때에는 수로 옆에 길을 내어 걷게 했으나, 지금은 다리를 만들어 수로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물은 남한강으로 연결되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온 민물고기와 참가재가 동굴 내부 입구 부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굴의 내부는 종유석군이 계속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종유석, 석순, 커튼, 산호, 유석, 휴석이 부분적으로 훌륭한 발달을 보이며, 그 모양과 색채도 다양하다.

(7) 정선 화암동굴

화암굴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출입이 잦아 파손과 오염이 많이 있었으나, 1980년 2월 26일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면서 무단출입이 차단되었다. 1993년 3월 1일 일반에 공개되

었다. 넓이 3m, 높이 2m 이내의 인공갱도를 따라 200여 m 정도 들어가면 갑자기 나타나는 대광장을 둘러보게 되어 있다. 지금은 갱도를 더 연장하여 급의 채굴에서 제련까지 전 과정을 둘러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시설해 놓았다.

(8) 동해 천곡동굴

천곡동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1년 6월 24일 동해시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공사중 발견하면서부터인데, 1991년 8월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1994년부터 도심 속의 자연학습장이란 기치아래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개발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진 것은 얼마 없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희귀종 박쥐인 붉은박쥐가 굴 내에 서식한다는 것이다. 천곡동굴은 종유석 등 2차생성물의 발달 외에 지하수에 의한 동굴 내부의 용식과 침식 흔적, 퇴적작용을 관찰, 이해하는데 더욱 적합하다. 바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각종 천장 형태와 침식벽면이 동굴 중간지점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종유석이 아닌 순수한 모암이 커튼형으로 드리워져 있기도 하고, 낫치와 낫치로 구별되는 침식선반, 천장 용식구와 용식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9) 태백 용연동굴

1966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어 1979년 12월 17일 강원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총연장이 850m에 달하는 길이 130m, 폭 20~30m의 대광장을 포함해 용연굴은 부분적 3층 구조를 보이는 망상형 동굴이다. 대광장과 연결되는 가지굴 등 동굴의 구조를 공부하고 이해하기 적당한 굴이면 희귀한 동굴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10) 삼척 환선동굴

환선굴, 관음굴 등 국내 굴지의 석회암동굴이 있는 대이리 계곡 전역이 1966년 6월 15일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었다. 환선굴의 거대한 아치형 입구는 인공적인 확장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크기이다. 입구부 좌측은 풍부한 동굴류가 흐르고, 우측은 낙석과 토사의 퇴적토이다. 탐방로는 조용히 흐르거나 혹은 폭포로 세차게 흐르는 동굴류와, 벽면과 바닥에 유석과 석회화단구 등 2차생성물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데, 폭포를 지난 곳과 신선계곡의 흑백유석은 흰색과 검은색, 흑회색의 조화가 깨끗하고 신선하게 보존되고 있다.

환선굴은 총연장 6.2km로 추정되는 동양 최대의 석회동굴로 표고 500m지점의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14m의 아치형 동구를 통해 다량의 동굴수가 유출되고 있다. 일반에게 공개된 구간은 총 1.6km로서 2개소의 광장과 6개의 지굴을 포함하고 있다. 환선굴의 너비는 국내의 다른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종유석은 물론 여러 단계의 형성과정을 거쳐 복합적으로 형성된 2차 생성물들이 집적되어 있어 동굴의 생성과 성장 퇴화의 과정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환선굴내에는 10개소의 크고 작은 동굴 호수와 6개소의 폭포가 분포하고 있어 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지하계곡을 탐방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특이하게도 환선굴은 바닥의 대부분이 종유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경 40m의 거대한 중앙광장은 수만명의 인원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환선굴의 주통로는 15m이상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어 그 웅장함은 다른 동굴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며 까마득한 천정에는 무수한 종유석군이 매달려 있고 용식구와 용식공이 대규

모로 발달되어 있고 곳곳에 천정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수가 신비로움을 더해 준다.

덩굴내의 기온은 최저 8℃에서 하절기 최고 14℃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천정과 벽면을 통해 스며드는 물방울의 양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천정과 벽면의 물방울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영롱한 빛을 발하여 금광을 방불케 한다. 환선굴은 그 규모가 워낙 거대한 관계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신비로운 볼거리들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동굴관광자원이다.³⁹⁾

(11) 제주 만장동굴

세계적인 용암동굴인 만장굴은 제주시 동쪽 약 24km 지점에 있다. 만장굴은 1970년 3월 28일에 천연기념물 제98호에 지정되었다.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4월 1일부터이나 공식적인 개방은 1974년 1월부터이다. 양쪽 벽면의 질서 있는 계층 발달과 연결된 무늬, 용암의 흐름과 색깔을 볼 수 있는 동굴 바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등 중용동굴만큼이나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만장굴의 용암석주와 거북바위라하는 용암구는 제주도 동굴의 상징중 하나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만쟁이 굴"이라 불리워졌던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이다. 총연장 13,422m로 용암동굴로는 1970년 3월에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 동굴은 화산분출시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 나오면서 지층 내부의 용암 출구가 텅 비며 생겨난 용암동굴로 1958년에 발견되었다. 주민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출입구가 수목으로 둘러 쌓이고 위험도가 높아 탐색하지 못했다. 굴내부는 사철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 9~15°를 유지하므로 겨울은 굴 내부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

하다. 특히 여름철에 이 굴에 들어서면 마치 석빙고를 찾은 듯 하다. 굴 내부의 모습은 단조롭게 이어진 것이 흠일 수 있으나 웅대한 규모가 장관이며 관람 끝 부분인 돌기둥까지는 약 1km인데 여기까지의 관람 소요시간은 왕복 약 40분이 걸린다.⁴⁰⁾

(12) 제주 협재굴과 쌍용굴

1971년 9월 30일 협재 일대의 동굴군이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협재굴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패사에 의한 중유석들이 들어차 있으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다. 협재굴에서 쌍용굴까지는 직선거리 60여m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굴의 민속학적인 접근을 통해 선조들이 어떤 용도로 동굴을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파악해 보고 주거지로서의 동굴, 그리고 동굴 관련 신화와 설화, 속담과 민간신앙, 생활민속으로서의 동굴의 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 주로 선사시대에 동굴을 주거로 활용하였는데 동굴을 추위에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대개는 동굴 입구에서 주거하였으며 식생활은 사슴, 멧돼지 등을 잡아 밖에서 동물을 해체해 동굴안에서 먹고 살았으며 그 가죽을 이용하였다.
2. 신화는 한 국가 탄생의 사상적 배경으로 동굴이 곰과 호랑이의 정성을 드린 장소로 나오며 동굴의 신비스러움과 관련된 설화가 많아 동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3. 동굴 관련 속담은 많지 않으나 미지의 세계와 관련한 속담이 있으며 굴 입구의 크기와 관련된 구멍관련 속담이 많이 있다.

- 4. 동굴을 민간신앙에서 기도처, 수양처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민간신앙에서 활용되는 동굴은 우선 물이 있어야 하고 웅장한 단애 및 암석이 있는 곳이다.
- 5. 현대 생활민속과 관련하여 동굴은 식품 저장소로서, 군사시설로써, 생활용수 공급처로써, 그리고 유희공간인 관광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註

- 1) 홍시환, 우리 나라 자연동굴의 지리적 분포와 그 특징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제20집, p.25.
- 2) 손보기·한창균, 1989, 점말 용굴 유적, 박물관기요, 단국대 중앙박물관, p.150
- 3) 홍시환, 1976, 전계서, pp.48-50.
- 4) 조선신문사, 1972, 일본열도전(日本列島展), 손보기의 논문에서 재인용.
- 5) 손보기·한창균, 1989, 전계서, p.1.
- 6) 손보기, 1980, 점말용굴발굴, 점말용굴발굴보고, 연세대 박물관, p.1~16.
- 7) 김원룡, 공주마암리동굴예보, 역사학보 제35·36합집, p.31.
- 8) 신태균·진재광·이치수, 1996, 제주 김녕리 퀘내기 동굴 유적에서 출토된 뼈유물의 고고학적 연구, 대한수의학회지 제36권 제4호, pp.757~758.
- 9) 상계서, p.759.
- 10) 손보기·한창균, 1989, 전계서, p.163.
- 11) 손보기, 1972, 석장리의 전기·중기 구석기 문화층, 한국사연구 제7권 1호, p.2.
- 12) 이라크 북동쪽 Palegawara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개의 유물은 BC 8400년경으로 보이는 Idaho Jaguar 동굴에서 발견되었다.(Turnull & Reed, 1974).
http://www.ncaes.go.kr/raising/jeju_jaelae/dog01.htm
- 13) Spain 북부지방의 Altamira 동굴에 있는 동굴벽화에 의하면 돼지는 BC 60,000년에서 BC 10000년 사이에 사육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중국의 여러 곳에 있는 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된 돼지의 뼈, 이빨 및 화문토기에 그려진 돼지의 그림과 기록들에 의하면 BC 10,000년에서 BC 30,000년 사이에 돼지가 사육되었다.
http://www.ncaes.go.kr/raising/jeju_jaelae/dog01.htm
- 14) 손보기, 1972, 전계서, p.2.
- 15) 조태섭, 1986, 점말용굴의 뼈연모 연구-특히 잔손질된 연모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p70.

- 16) 신태균·진재광·이치수, 1996, 전계서, pp.757~758.
- 17) 손보기·한창균, 1989, 전계서, p.155.
- 18) 홍시환, 1976, 전계서, pp.48~50.
- 19) 이기석 교수, 류재명 교수, 2001년 2학기 정기 학술답사보고서 오름과 동굴과 지층으로본 제주도(2001. 9. 19~22)
- 20) 조운찬, 한국 구석기유물 첫 해외나들이, 경향신문(2004.03.29)
<http://news.media.daum.net/culture/art/200403/29/khan/v6386161.html>
- 21) 홍시환, 1979, 한국의 자연동굴, 금화출판사, pp.9~10.
- 22) <http://100.daum.net/DIC/detail?id=1076300&sname=고씨굴&ty=1>
- 23) http://www.yongwol.co.kr/sub_view.html
- 24) 홍시환, 1979, 전계서, p.14.
- 25) 고임순, 1995, 수상 ; 그 동굴의 의미, 한국논단 72권, pp. 174~177 참조.
- 26) 국민일보, 충북 단양 '온달동굴'(1999.8.4)
- 27) 김정은, 남한 최초로 공개된 석회동굴, 성장 멈춘 종유석, 역사도 멈추다, 오마이뉴스(2004. 5. 28) <http://news.media.daum.net/culture/leisure/200405/01/ohmynews/v6575751.html>
- 29) <http://tbcall.com/taxi/ytgour.htm>
- 30) 김용, 2003, 김용기자의 기도터 순례, 전통문화출판사. pp.6~7.
- 31) <http://www.shaman.co.kr/pray.htm>
- 32) 상계 사이트
- 33) <http://www.shaman.co.kr/pray2/6-02.htm>
- 34) <http://www.shaman.co.kr/pray2/4-04.htm>
- 35) <http://www.shaman.co.kr/pray/4-05.htm>
- 36) 허길행, 1991, 지하공간을 이용한 식품저장 가능성에 관한 검토, 농촌경제 제1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19.
- 37) 김정만(62세), 홍성군 광천읍 용암리 416-4.
- 38) 임무원, 임재환, 1998, 동굴을 이용한 수산물 저장의 사회 경제적 투자효과 분석, 지역개발논총 10집, pp. 261~285.
- 39) 홍시환, 1976, 전계서, p.82.
- 40) http://www.hwanseongul.com/?mode=m4_4
- 41) http://www.jejutop.co.kr/tourdoumi/jejutour/tour_detail.asp?t_no=14

文 獻

- 고임순, 1995, 수상; 그 동굴의 의미, 한국논단 72권.
- 김상훈, 1978, 우리나라 관광동굴의 현황과 그 개발에 대한 소고,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

- 회 1권 2호.
- 김신규, 1985, 평양부근동굴유적발굴보고 : 유적발굴보고 제14집,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완수, 1986, 원시동굴벽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자치단체 국제행사-강원도 삼척시- 2002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지역관광자원을 앞세운 세계인의 동굴축제, 51권 583호.
- 박강철, 1991, 사회문화변동에 따른 주거규모의 추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 홍익대학교.
-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6, 유적발굴보고,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무송, 1998, 동강 유역의 석회암 동굴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5권 2호.
- 석동일, 1987, 한국의 동굴, 아카데미서적.
- 소진섭, 1999, 동굴, 서울 : 고음사.
- 손보기·한창균, 1989, 점말 용굴 유적, 박물관기요, 단국대 중앙박물관,
- 스티븐 버트먼(;김석희 옮김), 1994, 동굴에서 들려오는 하프소리:낭만의 고고학기행, 한길사.
- 신태균 이차수 진재광, 1996, 제주 김녕리 퀘내기 동굴 유적에서 출토된 뼈유물의 고고학적 연구, 대한수의학회지 36권 4호.
- 우경식, 2002, 동굴, 서울 :지성사.
- 윤경수, 1997, 단군신화의 광명상징과 고전문학에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동굴모티프와 고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8권.
- 이무원·임재환, 1998, 동굴을 이용한 수산물 저장의 사회 경제적 투자효과 분석-광천지역을 중심으로- , 지역개발논총 10집.
- 이용균, 1998, 청원 두루봉 유적과 요동 구석기 동굴 유적의 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이용조·조태섭, 2003,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옛사람들의 사냥경제활동- 중원지역 동굴유적을 중심으로, 섬사와 고대, 한국고대학회 1권.
- 임신행, 1983, 아이들의 동굴, 서울 : 백미사.
- 정은혜, 1999, 기능적인 삶으로서의 동굴 밖의 삶, 철학사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조태섭, 1986, 점말용굴의 뼈연모 연구-특히 잔손질된 연모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한창균, 1990, 용곡 동굴유적을 다시 논함, 동방학지 60권.
- 홍시환, 1976, 우리 나라 자연동굴의 지리적 분포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지 20권, 건국대학교.
- 홍시환, 1979, 한국의 자연동굴, 금화출판사.
- 홍시환, 1989, 고수동굴지대, 삼주출판사.
- 홍시환, 1990, 한국동굴대관, 서울: 삼주.
- .Bertman, Stephen(김석희 역), 동굴에서 들려오는 하프소리 :낭만의 고고학기행, 서울 : 한길사, 1995.
- http://www.ncaes.go.kr/raising/jeju_jaelae/dog01.htm
- 매일신보, 동굴내(洞窟內)의 적소탕(敵掃蕩) 야습적(夜襲敵)을 제선격파(制先擊破) (1940.4.23)
- 매일신보, 동굴발견(1922.5.18)
- 매일신보, 준동(蠢動)튼 중공유격대(中共遊擊隊) 전의상실(戰意喪失) 동굴도입(洞窟逃入), (1943.08.15)